철학、윤리 입문

- “철학자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일까?”

철학에 대해 이른바 대한민국의 21세기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은 보통 가진 자들, 배운 자들의 말장난, 말꼬투리 잡기로부터, 너무 어렵고 심오해서 나는 범접할 수 없는 고상한 것, 읽으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거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번은 알아보고 싶은 것,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 것, 생각하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의 대부분은 철학자들에 의한 철학의 규정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 품고 있는 막연한 인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가 내 친구와 이야기를 한다면, 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느낀 인상보다는 내 친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리하여, 나는 궁금하다. 철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인상이 아니라, 철학자가 정말 철학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철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철학자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 철학에 대한 소문과 인상이 아니라, 철학자가 하는 철학에 대한 말을 한 번은 마음을 열고 열심히 성의껏 들은 후, 내가 철학에 대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알고 난 후에, 철학이 말장난이고 개똥철학인지 판단해도 늦지 않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 철학입문 - "철학자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일까?"**

1강. 철학에 대한 오해들 - 철학은 무엇이 아닌가?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철학에 대한, 곧 서양에서 이른바 기원전 5세기에 발명되어 19세기 말에 한반도에 수입된 서양적 의미의 철학 곧 필로소피아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다. 부정적으로는 가진 자, 배운 자들의 말장난, ‘꼰대스러운 늙은이들의 지적질’로부터, ‘철학에는 정답이 없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거쳐, 긍정적으로는 인생과 세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라는 의견까지 천차만별의 때로는 모순된 견해들이 뒤섞여 통용되고 있다.
강의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니고 공부한 한국인으로서, 이후 1996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외부 특강 등을 통해 철학에 대한 한국인들의 무수한 견해와 의견을 듣고 모으고 수집한 사람으로서, '다른 철학책'이라 이름 지은 한 권의 철학입문서를 쓰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열린 오늘의 한국인들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오해의 근원과 해법을 제시한다.
철학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관념 혹은 인상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그러한 예시와 분석의 과정 자체로 철학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명료한 사례를 제시하는 강의가 될 것이다.

2강. 철학(함)이란 무엇인가? - 다전제의 사고
가령 정치학이나 경제학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혹은 사랑이나 우정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철학에 대한 정의는 무한하다. 철학에 대한 모든 정의는 철학을 그렇게 정의한 사람

의 관심의 표현에 불과하다. 철학은 궁극적으로 누가 어떻게 정의하여 그와는 다른 정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일정한 정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철학에 대한 몇몇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어서 강의자가 지지하는 철학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를 살펴본다. 후자를 위한 주교재로 강의자가 선택한 책은 김용옥의 <논술과 철학강의>(통나무) 중 제2권이다. 철학을 '대전제에 대한 탐구'로 규정하며, 그러한 대전제를 바꾸어 사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기반한 것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은 철학을 그 내용이 아닌 방법론의 관점에서 규정함으로써 초보자의 용이한 접근을 가능케 함은 물론, 이제까지의 철학에 대한 정의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제공해준다.
근거와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 '보험'이라면, 근거와 이유를 묻고 따지고 이해하는 것, 그리하여 나의 공부와 내 삶, 내 일상생활이 만나는 것이 철학이다!

3강. 철학, 진리의 정치사 - "나는 지도도 달력도 없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은 유일무이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것일까? 혹은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왜 영원불변하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이 철학이라고 믿게 되었을까? 내가 16세기 조선에서 태어났어도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14세기 아마존에서 태어났어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데, 내가 18세기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는 마치 위궤양, 우울증은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데, 이름만 서양에서 18-19세기에 붙여졌다는 나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비슷하다. 조선에는 철학이 없었는데, 19세기에 서양의 것이 일본에서 수입되었다는 말이 있다면, '조선에는 철학이 없었다.'는 말에 조선의 후예인 나는 분노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철학의 정의가 문제이다. 그렇다면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이란 서양철학의 진리가 지도와 달력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라는 말인가? 지도와 달력을 떠나지 않는 철학이란 무엇이며, 그러한 철학은 가능한가?

*** 윤리입문 -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는가?"**

4강. 윤리학의 개념 지도 - 정의와 영역들
수능입시에서 '윤리'는 '전략과목'이다. 윤리점수가 좋은가 나쁜가와 그 학생의 윤리적 품성이 좋은가 나쁜가는 비례도, 역비례관계도 성립하지 않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무관한' 관계이다. 윤리 점수가 좋아도 인간성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윤리 점수가 나빠도 인간성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윤리학은 왜 배우는가? 점수 따려고?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늘 성실해야 하는가? 양심의 가책은 병인가? 진리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착하게 살면 바보 되는가? 벌을 받으면 죄를 사라지는가? 프랑스 고교입시 바칼로레아의 철학시험에 나 나올법한 이러한 질문들은 실제로 윤리학이 다루는 문제들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선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등장하듯, 윤리학은 한 사회에 의해 주어진 정답의 체계로서의 '도덕'이 아니라, 그러한 주어진 도덕에 대해 근거를 따져가며 생각하고 철학하는 '도덕철학'이다(이 경우, 도덕철학과 윤리학은 같은 말이다).
이 강의는 대학원에서 윤리학과 정치철학을 전공한 강의자가 마음이 열린 성의 있는 초보자를

위해 '도덕철학'으로서의 '윤리학'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입문 강의이다. 이를 위해 첫 시간에는, 준비운동 삼아, 윤리학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와 기본적 분과들을 간략히 설명한다.

5강.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는가? - 한계와 조건

이제까지의 모든 윤리학은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여 논의를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해란 무엇인가? 니체와 레비나스의 말대로, 이해 자체가 나의 감정이입을 통하여 너를 이해한다는 자만을 정당화함으로써, 너 자체는 사라지고 너에 대한 나의 공감과 동정이라는 '나의 인상'만이 남게 되는 폭력과 침해의 근본 양상이 아닌가?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이해했는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말할 때,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을 이해했는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기원하여 영어를 비롯한 현대 유럽어로 전용되었고 일본어로 번역되어 오늘날 한국어 음가로 '이해'라 읽히는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행스럽게도 적어도 19세기 이래 철학자들은 이제까지의 이해 관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행해왔다. 강의에서는 이해와 소통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분석 내용을 자료 삼아, 동과 서가, 고와 금이 만나는, 오늘 여기 우리의, 나의 해석을 제시해본다.

6강. 내 느낌, 내 관심, 내 생각 - 윤리와 정치

우리는 남이 나와 생각이 다르면 보통 화가 난다. 남이 나에게 부정직하거나, 혹은 자신마저도 속인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남이 정말 정직하지만 무지하여 무엇인가를(아마도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몰라도 좀 덜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더욱이 스스로에게 정직한 인간이라면, 나도 바로 남에게 그런 화, 분노의 대상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나와 자신을 속일 경우,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나는 남이 정직하다 해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화가 난다. 그런데, 사실은 나의 정직한가의 여부와도 무관하게, 그리고 설령 남이 정직하다 해도, 결국 나와 생각이 다르면 화가 난다. 정리하면, 남이 나와 자신을 속이면 나는 화가 난다. 이건 당연하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남이 정직하지만 무지하면, 나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된다. 악의로 고의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결국 내 생각이 옳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상대도 나와 똑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옳다'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의 주관적 판단일까? 나의 인식의 한계이자 조건일까? 이러게 상대주의에 빠져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 종교를 믿거나 플라톤주의자가 되어야 할까? 상대주의는 정말 꼭 나쁜 것일까? 민주주의는 진리의 상대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라는데! 이건 다 말장난일까? 내게 말장난으로 보이면 다 말장난일까? 윤리는 정치나 권력, 이익과 관심, 인식을 떠나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닐지도 모른다.

- 이 강의는 철학과 윤리학에 대한 전혀 아무런 기초도 없는 사람, 전혀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 강의입니다. 열린 마음과 성실한 태도만 갖고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철학, 철학사 및 윤리학에 관련된 자료들이 제공됩니다.

I. 철학(함)이란 무엇인가?

II. 서양 철학사 - '실체'에 대한 탐구.

서양철학사는 대개가 **실체(實體)**에 대한 탐구의 역사다. 실체란 무엇인가? **substance**(sub=meta + stantia = essence 本質)와 stantia(=stuff=physika=appearance 現象) - 무엇이 이 우주, 세계, 자연, 인간에 관한 영원불변한 眞理인가?

"~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 영원불변하는 眞理(the Truth) 혹은 本質(the Essence)을 서양철학에서는 **實體**(substance)라 부른다. 實體는 어떤 무엇이 그 무엇이 되게 해주는 그것.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이것이 그것에 없으면 그것이 그것이 아니게 되는 그 무엇. 어떤 것을 그 어떤 것이 되도록 하는 것(scientia, logos, sophia, episteme, Wissenschaft, knowledge, the Truth ...). 한마디로, 실체란 -주의(-主義, -ism) 앞에 붙는 것이다.

*** 본질과 현상**

본질 本質 Essence	현상 現象 appearances
진짜로 있는 것 What really exists beyond, behind, or under our appearances	실제로는 없는데 혹은 중요하지 않은데 무지, 속임수, 착각 등으로 인해 진짜로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
理性的 推論의 대상 logos	感覺・感情의 대상 aisthesis
實體 Substance 原質 Archē, Arkē, Urstoff, 存在(있음) Being, Existence, Existenz 實在 - Reality	비본질적, 부차적, 가변적

*** 에피스테메와 독사**

epistēmē	doxa
理性 reason	感覺・感情・感性 sensations, sentiments
眞理・認識・知識・學問 The Truth, The Science, The Knowledge	意見・臆測・臆見 opinions
永遠 不變 eternal, timeless	時間과 空間에 따라 變化 time and space
普遍 universal	特殊・具體 particular, special
絶對 absolute	相對 relative
合理 rational	經驗 empirical
本質 essence	現象 phenomena
實體・實在	假象・그림자

substance, reality	appearances, shadows
觀照・理論 theoria	實踐 praxis

*** 서양 철학사를 지배하는 개념들의 이원적 도식**

기하학적 형상	기하학적 대상물체
본체 noumena 실체 substance 실재 實在 reality 보편 universal 개념 concept	현상 phenomena 현상 phenomena 현상 現像 appearance 개체 particular 사물 things
이데아 idea 예지계 叡智界 intelligible world 가사계 可思界 cosmos noetos	그림자 shadow 감각계 感覺界 sensible world 가시계 可視界 cosmos horatos
동굴밖 cave outside 빛 light 영혼 soul 정신 mind	동굴안 cave inside 암흑 darkness 육체 flesh 물체 matter
주어 主語 subject 주관 subject	술어 述語 predicate 객관 object
일차성질 primary quality	이차성질 secondary quality
오성 悟性 understanding 이성 reason 선험 先驗 transcendental 선천 先天 a priori 실체 實體 substance 형상 形相 eidos, form 형식 form	감성 感性 sensation, perception 경험 experience 후험 後驗 emperical 후천 後天 a posteriori 속성 屬性 attribute 질료 質料 hyle, matter 내용 content
하나님 God 천사 angel 천상 the Kingdom of Heaven 하느님나라the Kingdom of God	인간 Men 악마 devil 지상 this World 인간세상 human world
초자연 supernatural 성 聖 the sacred	자연 Nature 속 俗 the secular

- 김용옥, 『논술과 철학강의』(2), 통나무, 2006, 256쪽

1. 플라톤 - “감각은 인간을 속이는 것이며, 이념(idea)이 믿을 만한 것이다.”
2. 니체 - “이념은 인간을 속이는 것이며, 감각이 믿을 만한 것이다.”
3. 노자 - “도(道)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道可道, 非常道)
4. 불교 -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철학은 반드시 영원불변하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정의(定義) 게임(by definition). 정의의 정치학. 정의투쟁. 이름 붙이기, 명명(命名, naming)、호명(呼名)의 정치학.

하이데거적 어원학에만 호소하는 오류(the fallacy of heideggerian etymology, of only appealing to the etymological roots).

*** A. N. Whitehead(1861-1947)**: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에 대한 각주의 역사에 불과하다."; "생명 곧 삶이란 엔트로피의 감소를 창출하려는 우주의 힘.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 환경을 삶에 적응시키는 고등생물의 진화. 이성의 기능이란 바로 이런 생명 곧 **삶의 기술**(the art of life)을 증진시키는 것. 삶의 기술 곧 이성의 기능은 첫째, 생존하기 위한 것(to live), 둘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생존하는 것(to live well), 그리고 셋째, 만족의 증가를 획득하는 것(to live better). **이성**이란 이러한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욕구들을 조절하고자 하는 욕구**(Reason is an appetite of appetites)."(『이성의 기능』(*The Function of Reason*, 1929), 김용옥 역안, 통나무, 1998)

*** 實體의 숫자, 성질, 속성에 따르는 구분들(-ism들)**

- 존재 여부, 파악 가능 여부에 따라: 虛無주의(nihilism), 懷疑주의(skepticism), 不可知論(agnosticism=a+gnosis) ...
- 실체의 개수에 따라: 一元論(monoism), 二元論(dualism), 多元論(pluralism)...
- 실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성분에 따라: 唯物論(materialism)과 唯心論(spiritualism=精神主義), 唯氣論과 唯理論 ...
- 실체를 파악하는 방식에 따라: 經驗論(empiricism), 理性論(=合理論, rationalism), 科學주의(scientism), 實證주의(positivism), 檢證 이론(verification theory), 反證 이론(falsification theory) ...
- 실체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實在論(realism), 觀念論(idealism) ...

*** 철학의 분과、영역들**

形而上學(metaphysics): 감각되는 자연학(physika)의 세계 너머(meta)의 참으로 존재하는 것. * physics: 물리학(物理學), 형이하학(形而下學). 정이(程頤, 伊川, 1033년~1107년): "이기론(理氣論)에 있어서 이기를 논함에는 '이'를 '체(體)', '기'를 '용(用)'이라 한다. '체'는 부동(不動)의 본체(本體)로서 형이상자(形而上者)요, '용'은 동(動)의 작용(作用)으로서 형이하자(形而下者)다. 여기서 말하는 형이상·형이하는 -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본체와 현상의 개념이 아니고 - 동(動)과 부동(不動)의 작용면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기'는 다 같이 본체로서 형이상자를 가리킨다."(위키피디어)

存在論(ontology): 참으로 존재하는 것.

認識論(epistemology): 참으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인식할) 수 있는가? episteme. ἐπιστήμη

論理學(logic): 로고스(말씀, 논리, logos; 말하다 legein)

倫理學(ethics): 성격(性格, ethos)에 관한 학문, 도덕적 가치에 관련된다. ethikē(☞性格學, 品性學?)

美學?(aesthetics): 감성(感性, aisthesis)을 다루는 학문. ☞ 감성학(感性學, aisthetikē, Αισθητική): 아름다움(美, to kalon), 미학적 가치에 관련된 학문. [ger. Æsthetik/Ästhetik:

Alexander Baumgarten, 1735] * 藝術哲學(philosophy of art): 예술의 본질 또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리를 다루는 학문.

* **辨證法的 唯物論**의 '철학의 근본문제': 이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파악가능한가? 실체의 본성과 그것의 파악 방식에 따른 구분 * 形而上學的(=종교적, 신학적)->機械論(=실증주의)->辨證法 * 觀念論->不可知論->唯物論

<u>* 윤리학(ehtics) 혹은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u>

"우리는 결코 사소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있는 것이다."(소크라테스 - 플라톤의『국가、정체(政體)』에서)

윤리(倫理): 인간 동아리의 이치/규칙. * 물리(物理), 논리(論理), 생리(生理).
윤리학(倫理學): ethikē(gr. 인격에 관한 학)-ethos(ἦθος, ἔθος, 성격/습관).

도덕(道德): morality-moralis-mores(la. 관습/예의). 개인、사회의 행동 기준.
도덕(moral)/부(=비)도덕(immoral)/도덕과 무관한(amoral, unmoral, non-moral)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주어진 도덕에 대한 철학적(메타적) 탐구=윤리학!

윤리학의 문제들 - 전통, 종교, 문화, 도덕은 절대적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절대적 도덕과 상대적 도덕? 누구를 위하여? 누가? 왜? 어떻게? 윤리란 언제나 존재를 따르는 것이다. 윤리는 존재가 아니다. 윤리는 기본적으로 존재에 대한 부정에 기초한다. 윤리는 궁극적으로 존재에 대한 부정인가?

*** 윤리학의 분야 혹은 구분**
규범(normative) 윤리학: "어떻게 살아라", "-해라", "-하지 마라"
분석、메타(analytic, meta) 윤리학: "선(善)이란?" "옳음이란 무엇인가?"
응용(applied) 윤리학: 사회윤리, 직업 윤리, 가정 윤리
生命윤리(bioethics), 生態윤리(ecological). * 環境윤리(environmental)

* 나는 왜 어려운 이들을 생각해야 하는가? 나는 왜 약한 이들의 편에 서야 하는가? 나는 왜 '그/그녀들'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보다 먼저, 나는 왜 나 자신을 배려해야 하는가?

*** 프리드리히 니체의 '도덕성의 최근 형식'**

"2[191] **나의 주장** : 도덕적 가치 평가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 도덕적 감정-충동을 "왜?"라고 물음으로써 저지해야 한다는 것. "왜?"와 도덕 비판에 대한 이 열망은 바로 정직의 고상한 감각으로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도덕성의 형식 자체**라는 것. 우리의 정직, 즉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스스로 그렇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 "왜 안 되지?" -어떤 법정 앞에서?- 기만당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정복과 착취에 대한 주의, 삶의 정당 방어 본능. //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요구다 - 그 요구들은 너희 귀에 들

리지 않을 수도 있다 - : 너희가 도덕적 평가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 너희가 여기서 비판이 아닌 예속을 요구하는 도덕적 감정-충동을 "왜 예속을?"이라는 질문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것. 너희가 "왜?"와 도덕 비판에 대한 이러한 열망을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도덕성의 형식 자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 너희가 너희 시대를 명예롭게 만드는 가장 고상한 정직의 형식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 - 프리드리히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원래 나는 나를 어느 정도 나 자신에게서 보호해주고>>, 이진우 옮김, 니체전집 19, 책세상, 2005.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의 요구이다 -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는 극히 거슬리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 즉, 여러분은 도덕적 가치평가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은 여기서 굴복을 바라고 비판을 원하지 않는 도덕적 감정의 충동에 대해 "왜 굴종인가?"를 묻고 그것에 대한 정지를 요구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왜?'에의 요구**, **도덕에 대한 비판에의 요구**가 바로 **도덕성의 최근 형식**이며, 동시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시대의 명예가 되는 가장 숭고한 종류의 도덕성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여러분의 정직성과 솔직함, 여러분의 속지 않겠다는 의지는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도대체 누구의 심판을 두려워해서인가?"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에게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힘에의 의지』, 6. 도덕 비판에의 결론적 고찰, 399번, 249쪽, 청하)

*** 프랑스 대입 바칼로레아 철학문제 - 윤리**

1.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욕망과 싸운다는 것을 뜻하는가?
2. 우리는 '좋다'고 하는 것만을 바라는가?
3.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4. 무엇을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가?
5.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가 존재하는가?
6. 무엇이 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가?
7. 우리는 정념(passion)을 찬양할 수 있는가?
8. 종교적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성의 포기를 뜻하는가?

* 임신중절의 문제에서 논점은 종종 '태아는 인간 존재인가'의 여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논쟁은 종종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논의로 간주되곤 한다. 태아에 관한 핵심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기 보다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 제임스 레이첼스, 『도덕철학』, 서광사.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처음 읽는 윤리학』, 동녘.

*** 윤리학 - 윤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

윤리학 - 倫理學 - ethics - ethikē (gr.) - ethos 習慣
도덕 - 道德 - morality - mores (lat.) 慣習
윤리학 = 도덕철학 = (기존의, 주어진) 도덕/윤리에 대해서 철학하는 것

기술적=도구적=효용적 가치
미(학)적 가치
윤리적=도덕적 가치

도덕적 moral
비도덕적/반도덕적 immoral, non moral
도덕과 무관한 amoral

記述 윤리학 prescriptive ethics
規範 윤리학 normative ethics
分析 윤리학 analytic ethics
應用 윤리학 applied ethics
生命/生醫 윤리학 bio-ethics, 生態、環境 윤리학 ecological/environmental ethics

논리적 불가능 logical impossibility
기술적 불가능 technological impossibility
윤리적 불가능 ethical impossibility

과학 및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렇게 -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즉 남은 것은 '시간의 문제'이다 - 이제는 가능하게 된 방식들을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혹은 적용하도록 놓아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과학의 발전은 기존의 세계관, 인간관 및 윤리관을 다시금 숙고하도록 강요한다. 우리는 중세와 달리 기존의 세계관 혹은 과학관이 과학의 진보에 의해 전복되는 것을 더 이상 공포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과 윤리의 문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중세로 또다시 돌아간다. 우리는 기존의 인간관, 윤리관으로 새로운 과학의 진보를 얽매고 단죄한다. 과학의 진보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발전을 무조건 위험시,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공적 공개적으로 토론, 비판하고 그것의 장단점, 위험성을 철저히 밝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기존 인간관, 윤리관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인간관, 윤리관 역시 그것이 새로이 발견, 구성되고 모색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주던 혁명적인 세계관이었던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주어진' 기존 인간관, 윤리관이 이제 더 이상 지금처럼 무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금석이자 축복이다. 철학의 과학 및 윤리에의 적용이란 바로 '주어진 전제의 안팎에서 생각한다'는 철학함, 철학행위의 적용이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철학이 '과학과 윤리의 만남'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 것이다.

*** 윤리 혹은 신앙의 문제 -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는가?**

* 아래는 1999년 내가 유학중이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한 한인교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나는 물론 종교가 없으나, 그 교회에 학술부장으로 있던, 역시 철학과 박사과정에 있던, 친구의 제안으로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이다. 나의 생각과 그리스도 교 사이의 공통점, 친연성을 발견해 보려 한 글이다. 언젠가 불교에 대해서도 이런 글을 쓸 날이 오면 좋겠다. 지금 이 글을 적으며 정확한 날짜를 보니 1999년 4월 4일에 발표한 글이다. * 뱀발. 그리고 이 글은 원래 저장 파일을 잃어버려 복사본을 보고 나의 제자 이성현군이 새로이 워드로 쳐준 글이다. 고맙게 생각한다.

M. 하이데거 씨는『존재와 시간』에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다운 실존으로서의 '나'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적 군중으로서의 '사람들'로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썼다. 이때 사유와 행동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군중'이며 '대중'이다(이를 하이데거 씨는 "사람들은 지껄인다."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떼 '사람들' 스스로는 자신이 '나'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는다. 이 경우 우리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피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믿는 그 만큼 오히려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바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며, 심지어는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평범한 주장이다. 내가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이해란 무엇인가' 즉 이해의 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해란 우리말은 영어의Understanding, 불어 Compréhension 혹은 독어의 Verständnis의 일본어 역(理解, りかい)의 우리말 음독이다. 모든 보통명사는 고유명사다. 그러나 '이해'란 용어 자체의 분석은 이 자리에서 수행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이 글에서 '이해'란 용어를 우리가 "난 걔 이해해"라고 말할 때와 같은 평범한 일상적 곧 감성적 용법으로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우리는 먼저 윗 문장에 나타난 '~할 수'라는 말을 통해 이해의 문제가 능력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다루려는 문제는 바로 이해에 관한 인간의 수행 능력 여부에 관련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논지의 전개를 위해 이와 유사한 몇 가지 입장들을 살펴보자:

1) 인간은 다른 사람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가? - 물론 이것은 예외가 가능한 특칭 명제(some)가 아니라 예외가 전혀 없는 완벽한 전칭 명제(all)로서 제시된 것이다. '완전히'라는 단어를 일반적 의미로, 즉 "내가 너의 모든 생각, 느낌, 감정, 동기 등등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모조리 다 이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이 명제는 쉽게 거부되어질 수 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Nobody knows 혹은 God knows). 따라서 인간은 타인 혹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法理)적 가부를 따질 수는 있을지언정, 그녀의 진실을 심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이해와 심판의 구조에는 항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본질적 불가지(不可知)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타인의 생각과 심정을 다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그녀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더욱이 누군가가 하느님의 의도와 생각을 다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그녀는 이미 신이거나 혹은 신 이상의 어떤 존재이다 -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리스도교)『성서』해석에 궁극적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에 기독교가 인류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인간 능력의 본질적 한계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세상에 대한 겸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용이다. 왜냐하면 비단

나뿐만 아니라 - 설령 어느 누군가가 『성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 우리 모두가 똑 같은 하느님의 자식, 즉 인간이기 때문이다(신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그것이 일단 전제된 하나의 체계 안에서는 일정한 '사실의 영역'을 낳는다. 따라서 신앙의 사실은 말 그대로 '믿음이 전제된 사실'이다).

2) 이제 이어서, 문제를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해 받는 사람'(보다 정확히는 '이해 받는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너로부터) 이해 받고 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대답은 아마도 '너'라기보다는 '나'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해'라는 바로 그 말의 의미와는 모순(?)되게도 '내가 이해하는 대로의 네가 너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한 입장은 '나'에게 편(리)하다 - 그러나 이해 받는(혹은, 이해 당하는?) '너'에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경우, 항상 (그 이해하려는 행위의 수행자인 나의 의지나 동기, 느낌보다는) 그 행위의 수혜자가 받는 느낌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하나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른바 '이해 받는' 이의 의견이 경청되지 않으며, 그의 느낌과 생각이 존중되지 않는 이해와 사랑이란 단순한 무지이며, 실상 자기 편의에 입각한 일종의 타인에 대한 폭력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대부분의 폭력은 사랑과 이해의 이름 아래 저질러진다('너를 위해서!'). 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제로서 현대의 인권 개념을 확장해 보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왜곡 당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나는 기독교의 '영혼의 복지'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생각과의 친연성을 발견한다.

3) 그렇다면, 인간은 타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때 '충분히'란 말은 먼저 '~을 위해서, 혹은 ~하기에 충분히'라는 뜻을 가질 것이다. 이는 이해의 본질과 관련된다. 이해란 우선적으로 언제나 보다 약한 자, 보다 억울한 자를 위한 단어이다. 물론 강자와 가해자도 이해 받을 수 있고, 또 이해 받아야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그것은 보통 그녀의 이해 받지 못하는 측면, 즉 약점과 상처에 대해서이다(물론 그녀의 긍지와 기쁨 또한 이해 받아야 한다) - 그러나 가해자 혹은 기득권자란 누구인가? 그것은 '피해자 혹은 없는 자의 고통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 즉 인식론적으로 말하면 '들을 귀 없는 자', 바로 우리 모두가 때로 가해자이다(갑골문에 따르면, 성인(聖人)이란 한자의 聖자에 귀 耳변이 들어 있는 것은 그가 바로 "하늘의 말, 남들의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다(壬자는 제사상(祭祀床), 口자는 제기(祭器)이다). 성인이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넘어) 원래 그들이 가슴 속으로부터 말하고자 했던 바까지 듣는 사람이다 - 그래서 동양에서는 '성인은 속일 수 없다'고 한다). 때로 피해자이며 종종 가해자인 우리 모두가 남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때의 '충분히'란 결국 '아픈 이의 곤혹, 괴로움, 상처가 좀 덜 아플 수 있을 만큼 충분히'일 것이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완전히'는 바라지도 않지만, '충분히'조차도 정말 어렵다. 아니 나는 그것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일뿐더러, 심지어 그러한 사고방식 안에 하나의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까지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인간은 '그녀가 타인에 대해 "내가 너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경향'을 지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참으로 이해하고 껴안기란 참으로 어렵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을 참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기조차도 참으로 힘겹다. 하물며 그것이 너임에야, 그녀임에야. 나는 너의 심정을, 너의 영혼의 깊은 소리를, 너의 진실을 모른다. 인간의 말이란 종종

참으로 잔인한 것이다. 그러한 때에 나의 선택은 '사람들'의 눈초리 안에서 재단되고, 나의 진실은 '그들'의 웃음꺼리가 된다. 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인에게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마음 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이해가 아니라, 나에게 더 작은 상처만을 입히는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가? 아니, 나는 내 영혼의 목소리, 그 부름을 듣는가? 아마도 나는 그녀의 진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든, 인간의 '진실'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아마도 『노자 도덕경』(老子 道德經)에 등장하는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의 규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I. 칸트 씨의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은 알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타인의 진실을 알 능력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차라리 나의 주장은 차라리 도올 김용옥 씨의 말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에 더 가깝다. 내가 의도하는 바는 - 마치 칸트 씨의 그것처럼 - 다만 인간의 인식과 이해의 능력에 일정한 한계선을 그으려는 것뿐이다.

따라서, 내 생각에 **오늘날의 윤리란 듣는 것이다**(L'éthique aujourd'hui, c'est écouter). 그것은 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며, 너의,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듣기'가 '말하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강조점은 '듣는 것'에 있다. 실상 '잘 듣는 자'만이 적절한 때에 '잘' 말할 수 있다. 아마도 한 인간이 '내가 너를 조금은 이해했나보다'하고 겸손히 생각해도 좋을 유일한 경우는 이해하는(?) 내가 '나를 너를 이해한다고 - 하이데거 씨의 표현대로 - 너에게 '지껄이는' 순간이 아니라, 이해 받는 그녀가 나에게 진심으로 '그 때 이해 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에게 참 고마웠다'고 언제가 후에 나직이 말하는 그 순간뿐일 것이다 - 나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와 행위가 윤리의 '최소치'라기보다는 '최대치'라고 생각한다.

나는 『성서』에 쓰인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명령 앞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본질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한다: 그러나 나는 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며, 더욱이 나의 이웃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약]의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세속에 있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자신과 똑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그의 이웃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성서』의 메시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 조건부의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이유는, 내게는 '하느님'과 함께 '나의 이웃'이 나를 '나'로서 만드는 본질적 조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기를 선택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긍정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 없이 그녀는 살아 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해 혹은 자기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자기 사랑과 이기주의를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E. 프롬 씨의 말처럼, 이기주의자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되, 실상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이기주의와 참다운 자기 사랑은 다른 것이다. 이기주의란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하고 동시에 바로 그러한 나의 행위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해 것이다. 내가 나의 건강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금연을 행하는 것은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다운 이해 혹은 사랑이란 자만심과도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자기 자신의 참다운 본질이란 바로 그녀에게 나누어져 있는 하느님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역시 사랑할 수 없다.

나는 M. 푸코 씨의 다음과 같은 명제를 지지한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배려 이전에 남을 배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 대한 배려는 자기에 대한 관계가 존재론적 우위를 갖는 만큼 도덕적 우위를 갖습니다. [...] 좋은 통치자란 정확히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즉 동시에 자신의 힘을 자기에게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들에 대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에 대한 권력입니다."(One must not have the care for others precede the care for self. The care for self takes moral precedence in the measure that the relationship to self takes ontological precedence. [...] the good ruler is precisely the one who exercises his power correctly, i.e., by exercising at the same time his power on himself. And it is the power over self which will regulate the power over others. <<the ethic of care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자기 배려의 윤리: 마지막 대담>>, 1984)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대면, 친교의 시간이 풍부하고 깊어지는 만큼, 자신과 세상을 잘 이해하는 만큼, 바로 그 만큼만 타인을 잘 배려할 수 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이 세상에 가득하길 빌어봅니다.

1999년 4월 4일, 스트라스부르 한인교회에서, 허경.

-

* 2007년의 부기 - 이 글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 모든 고통 받는 사람들, 이해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즉 나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이다. 나는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모든 고통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중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자신의 느낌을 믿고 이야기할 그 누군가가 없는 사람들만이 자살한다.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 누군가를 가진 어떤 사람도 자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결국 모든 것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이다. *thank you for kind attention!*